월요광장

배고프지 않을 날들을 위하여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어버이날이 가까워져 엄마를 보러 고향 집에 갔다. 출발한다고 전화를 드렸을 때는 낮잠 주무신다고 했는데 도착할 즈음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어린 애처럼 달려가 엄마 품에 안기고 서로의 등을 토닥거렸다. 이대로 엄마 냄새 맡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엄마는 급히 할 일이 있으니 쉬고 있으라 하셨다.

팔순의 엄마는 오랜만에 자식들이 집안에 북적거리니 좋으셨던 것이다. 마당의 큰 솥단지에 물을 한 가득 채우더니 손질해서 얼려 둔 알밤이랑 녹두를 넣고, 말린 대추와 황기를 넣고, 보기에도 튼실한 토종닭을 넣고, 굵은 소금 한 줌 집어넣어 장작불을 피우셨다.

굴뚝에 매캐한 연기가 오르고 타닥타닥 나무 타는 냄새가 옹기종기 모인 우리들을 휘감았다. 장작불의 훈훈함은 해거름의 눅눅한 공기를 말려 주었는데 불 냄새를 맡자 그립고 따뜻한 고향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났다. 엄마가 사랑과 아픔으로 낳고 기른 딸들, 어느새 그 딸들이 자라 또 다른 아픔과 사랑으로 기른 손주들이 거기 있었다.

솥에서 폭폭 김이 솟을 때 엄마는 장독대 항아리를 열어 묵은지를 숭덩숭덩 썰어 담고 큰언니는 머위 나물을 들깨 가루에 볶아 접시에 올렸다. 남동생은 널따란 쟁반에 닭백숙을 건져 손으로 찢었다. 엄마는 또 그새 찹쌀을 넣어 죽을 쑤고 우리들은 담백하고 고소한 백숙을 기름장에 찍어 먹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이 맛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맛이다. 뚝딱 차려 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기막히게 맛있는 마법의 요리는 바깥 세상에 지친 우리들의 허기를 단숨에 채워 주었다.

맛있는 음식의 진짜 비밀은 그것이 가족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모든 재료들이 한데 모여 더 커다란 무언가를 만들기 때문이다. 먹고 웃고 떠들면서 코끝 찡해진 엄마표 음식의 비결은 오직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을 어찌 모를까. "기억에 남는 모든 맛있는 음식에는 누군가와 함께해 온 오랜 시간의 향기가 아로새겨져 있다. 무릇 진정으로 맛있는 음식에는 그 사람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그 음식의 맛과 그 사람의 영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복제 불가능한 아우라가 담겨 있다."('월간 정여울'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족들이 생각나는 것은 인지상정. 해 먹는 밥보다 사 먹는 밥이 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애틋하다. 그래서 책의 문장을 빌어 대신 마음을 전하곤 한다. "다시 말하지만 육체를 보살펴야 한다. 네 육체에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말을 들려주고 좋은 향기를 맡게 해 주어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몸에서부터 시작해야 해."('딸에게 주는 레시피', 공지영)

갈수록 실제 음식을 만드는 일보다 맛집을 찾는 데 익숙해진다. 화면으로 보는 맛을 실제로 느껴 보기 위해 검색을 하고 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이토록 풍요로운 음식을 앞에 두고서 왜 자꾸 허기가 질까? 상품화된 요리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철학자들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이 늘어날수록 집에서 하는 따뜻한 요리에 대한 집단적 노스탤지어가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편의점 음식들이 위장은 채워 주지만 마음의 공허는 채워 주지 못하고, 오히려 따뜻한 음식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간절하게 불 지필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 우리들 마음 저 깊은 곳에는 풍성한 재료들을 만지고 음식을 만들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다운 편리함의 추구와 어지간한 것들은 대행 서비스로 돌리는 간편함에서 우리는 이토록 고독을 자초한 것일까.

임순례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본 청춘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배가 고파서 고향에 내려온 주인공 혜원이 자신 같았다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면서 포카칩과 라면 같은 것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에게 미안해졌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밥하는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던 날들을 뒤로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으려 노력하고 싶다고 한다. 그럴 때에야 자신은 물론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시험, 연애, 취직, 그 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는 일상에 지친 주인공이 자신을 위한 식탁을 차리면서 마음을 일으킨 것처럼.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정성들인 음식을 만들고, 사랑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자연의 재료들로 계절을 느끼는 것은 삶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길이다. 우리 입에 들어오는 모든 먹을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로 오는 것이니 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먹을 것과 기쁨을 선사하는 자연의 넉넉한 인심은 물론이다.

햇볕에 말려 놓았던 도마와 숫돌에 간 날렵한 부엌칼로 오징어 껍질을 벗기고 양파를 썰고 마늘을 다진다. 껍질 깐 양파의 신선한 생명력을 손끝에 느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밥값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척 보면 압니다?

송 창 운
변호사

'척 보면 압니다'

아는 분들은 알 만한 철 지난 유행어이다. 한참 동안 유행했던 유행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얼마 전 있었던 일 때문이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누군가가 밤 사이에 차로 집 앞에 세워둔 아버지 차의 뒷문부터 앞문까지 긁고 줄행랑을 쳤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말 그대로 '긁고' 간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조금 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그게 아니었다. 긁은 게 아니라 '박은' 것에 가까웠다.

조수석 아랫부분이 움푹 패여 있었다. 긁힌 줄 알았는데 박힌 것이란 사실을 확인하니 열이 확 났다.

아버지께서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그날 새벽 1시 40분 무렵 하얀색 차가 사고를 내고 가는 모습까지는 확인하셨으나, 아쉽게도 블랙박스 화면으로는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담당 수사관이 주변 방범 카메라 영상 등을 확인해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고 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쉽게 범인이 잡힐 줄 알았다.

부모님 댁은 주택가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벽 그 시간에 그 좁은 곳을 지나는 차라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의 차량일 것이고, 담당 수사관은 블랙박스를 보고 어떤 차종인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에 등록된 차량을 확인하고, 근처 방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면 아버지 차에 몹쓸 짓을 하고 간 범인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며칠째 감감무소식이었다. 차는 아버지가 가입하신 보험회사를 통해 수리했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으니 다행이긴 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 괘씸한 생각도 차차 희미해졌다.

그러다가 며칠 전 아버지로부터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담당 수사관이 이야기하길, 범인은 남구에 사는 사람이란다. 범인이 우리 집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한 나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그런데 뒤이어 하시는 이야기는 더 놀라웠다. 사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이 혹시 블랙박스에 찍힌 시간이 정확한 것인지 물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 확인해 보니 25분이 늦더란다. 그렇다면, 사고 시각은 그날 새벽 2시 5분 무렵이니 담당 수사관은 다시 한 번 이 시간을 중심으로 10분 앞뒤의 주변 방범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해 보았고, 결국 용의 차량을 확인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사고 후 며칠이 지나자 범인을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사고 현장에 CCTV가 없거나 자신 또는 주변에 주차됐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대부분 미제 사건이 된다는데 사고 시각을 착각해 자칫하면 미제 사건이 될 뻔했음에도, 담당 수사관의 번뜩이는 재치로 범인을 잡게 된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인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25점을 받을 것이다. 정의가 실현돼 기쁘다. 지면을 빌어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의 담당 수사관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참고로 주차장 뺑소니가 아닌 일반 뺑소니 교통사고의 검거율은 98%에 이른다고 하니, 사고 후 혹시나 잘못된 마음을 먹는 분이 없도록 말씀 드린다.

나는 '척 보면 압니다.'라는 마음으로 범인이 근처의 사람일 거라고 추리했으나 보기 좋게 빗나갔고, 다시 한 번 섣불리 결론을 내는 성급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됐다. 그런데 왜 범인은 하필 그 시간에 그 골목을 지났을까? 궁금하기는 하나 섣부른 추리는 하지 않겠다.

기 고

내 마음의 스승

이 동 범
전 광주교총 회장

신록과 함께 순백의 이팝나무에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한 흰 꽃 가지가 봄바람에 너울거리는 모습은 환상적이다. 아카시아 꽃 향기와 만개한 철쭉 꽃들은 봄의 향연이 아닐 수 없다. 이 좋은 계절이면 '스승의 날(5월 15일)'이 찾아온다.

스승의 날이 되면 잊지 못할 스승이 생각난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하교 시간 무렵 교실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 뒹굴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왜 그러니, 어디가 아프지?"라고 물으셨지만 무척 견디기가 힘들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나를 등에 업고 4㎞나 떨어진 집에까지 데려다 주셨다. 그때는 버스나 택시가 없는 시절이어서 걸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선생님의 등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기억이 생생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나를 눕혀놓고 배를 쓰다듬어 주셨다. 이때 응급처치용 단방약을 먹고 무사히 나은 것을 생각하면 선생님의 따뜻한 제자 사랑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 밤이 됐으니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라고 말씀하시고 사랑방에서 주무시게 했다. 아침에 멀쩡한 저를 보신 선생님께서는 "참, 다행이다. 학교에 갈 수 있겠니?"하시면서 "갈 수 있으면 학교에 함께 가자"라고 해 선생님과 같이 등교를 했다.

또 잊지 못할 스승은 고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시다. 대학 진학과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교육대학교에 부임하게 됐으니 이 학교에 진학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교육대학교는 학비도 싸고 졸업하면 바로 교사로 취업이 되니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다.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아시고 조언해주신 말씀대로 입학해 무사히 졸업한 결과 42년간을 교직에 몸담게 해주신 분이다.

태산같이 높고 무거우며,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스승의 가르침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내 마음 안에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이 분들이 계셨기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군사부일체'란 옛 선조들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일선 교육현장에는 교사들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너진 교권 때문에 교사 노릇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다.

오늘날 교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무시되고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사직에 회의를 느껴 교단을 떠나는 분들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긴 여정의 고난을 뚫고 열의에 가득 차 큰 뜻을 품고 현장에 나왔지만 정부의 기관이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도 교사에 대한 예우나 권위를 무참히 짓밟고 있으니 처참할 따름이다.

최근 5년간 광주시교육청 산하 교권보호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모두 946건에 달했다고 한다. 절반 이상이 욕설이나 폭언이었으며, 폭행과 성희롱도 있었다. 여기에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에 항의하거나 학급 운영까지 간섭하는 학부모 사례도 상당수여서 교사들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체벌금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사들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무너지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정상적인 교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교권 침해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스승은 참으로 귀한 직분이다. 스승의 지시를 잘 따른 사람들은 부흥했으며, 스승에 말에 함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패망하였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

사자소학(四字小學) 사제편에 나오는 '총시사공'(總是師功)은 "모든 것은 스승의 공이다."란 말이다. 내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스승의 덕분이라는 말이 담겨 있다. 여기서 특별히 선생님이나 교사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모두는 그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스승의 날 하루만이라도 국민 모두가 각자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나를 있게 한 스승을 한 번쯤 찾아보면 어떨까? 잊지 못할 내 마음의 스승이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社 說

여야는 5·18 진상 조사위원 추천 서둘러라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부 수사관과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최근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5·18 민주유공자 김선옥(60) 씨는 1980년 9월 소령 계급을 단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5월단체 회장을 지낸 이지현(65) 씨는 1980년 5월19일 고등학생이던 한 여성이 군인 다섯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승려가 된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특별법의 핵심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외면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가 아직까지 조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회에 오는 4월 30일까지 진상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국회는 4개 교섭단체에 이를 통보했다. 하지만 여야 그 어느 교섭단체도 아직까지 진상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국방부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조사위원회 구성이 공전되고 있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쟁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민주평화당의 경우 진상 조사위원으로 민병로 전남대 법대 교수를 내정했으나 통보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물론 시행령 마련 등에도 상당한 동력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조시위원 추천을 서둘러 5·18 진상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단체장 무더기 선거 출마 행정 공백 없도록

여야 주요 정당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 후보를 속속 확정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현역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직무 정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27개 시·군·구 가운데 최대 19곳에서 부단체장들이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보여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광주 지역의 경우 5개 구청 중 연임 제한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송광운 북구청장을 제외한 동·서·남·광산 구청장이 이미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영호(남구), 민형배(광산)구청장은 지난 3월 초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성환(동구), 임우진(서구) 청장도 최근 재선 도전을 위해 구청장직을 내려놓았다.

전남에서도 현재 박홍률(목포)·강인규(나주) 시장과 최형식(담양), 유근기(곡성), 김준성(영광), 이동진(진도) 군수가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상태다. 보성군과 해남군, 무안군 등은 군수가 검찰 조사 등으로 퇴직해 22개 시·군 중 9곳의 단체장이 공석이다.

여기에 정현복 광양시장과 구충곤(화순), 전동평(영암), 유두석(장성), 신우철(완도), 고길호(신안) 군수 등 재선에 도전하는 여섯 명의 단체장이 후보 등록을 위해 추가로 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전남 22개 시·군 중 15곳의 단체장이 공석이 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단체장이 사퇴하면 상당 기간 행정 공백이 빚어진다.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을 맡아 행정을 처리하지만 선출직이 아니어서 중요한 정책 결정은 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현상 유지나 관리형 행정을 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시·군·구의 공직자들은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업무 누수나 공백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전략

작가이자 실록 사가인 박영규는 '조선전쟁실록'에서 임진왜란 승리의 요인으로 해전에 강한 판옥선과 거북선을 꼽는다. 당시 조선의 배는 전선과 조운선으로 쓰인 맹선(猛船)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삼포왜란과 을묘왜변 등을 거치면서 맹선의 문제점을 보완한 판옥선이 제작됐다. "1층 선실에 격군을 배치해 노를 젓게 하고 전투병은 2층에 배치해 싸움에 전념하도록 했다. 이 경우 격군의 수를 늘려 배의 속도를 한층 높임으로써 평저선의 느린 단점을 보완하고, 격군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판옥선의 상체를 개량해 덮개를 만든 배가 거북선이었다. 격군과 전투병까지 보호할 수 있었던 데다 지붕에 칼과 창을 꽂아 적의 접근을 막았다.

박영규 작가는 판옥선과 거북선 외에 이순신의 승리 비결을 왜군의 전법을 꿰뚫은 전략에서 찾는다. 해전에 약한 왜군은 우리 수군이 정박 중일 때 기습하거나, 뭍으로 유인하려는 전술을 폈다. 그러나 이순신은 절대 뭍으로 올라가 전투를 치르거나 적과 가까운 곳에 정박하지 않았다.

북미회담이 내달 12일 싱가포르로 결정됐다.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 체결을 점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통 크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에 위치한다. 조선 시대에도 남쪽에 일본이, 북쪽에는 여진이 있었고 동아시아의 제국 명나라가 조선에 관여하는 형국이었다. 오늘날 역학관계와 유사한데, 명의 자리에 미국이 있다는 것만 다르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영토를 개척한 사건이 바로 '6진 개척'이다. 세종은 여진 부족 사이의 분쟁에 개입해 영토를 확장했으며, 그것은 당시 국제 정세를 통찰한 혜안이 빛은 성과다.

김정은은 지난해 미 프로 농구 선수인 로드맨이 전해 준 트럼프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다. 트럼프 또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제 해제는 없다며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한 문 대통령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제가 이번만큼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간다'는 명언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